10.15686/fkl.2025..65.140 OPEN ACCESS

「검은 수녀들」에 나타나는 소수적 저항성 연구

장서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학술연구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같지만 다른 세계: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
2.1 가장 오래된 가부장제로서의 기독교
2.2 오컬트를 넘어서는 '오컬트'
3 소수들의 저항: 혼종성과 탈전유
3.1 차선이자 최선으로서의 혼종성
3.2 '여성'의 탈전유: 낙인에서 수단으로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화 「검은 수녀들」에 나타나는 소수적 저항성을 규명함으로써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반한 젠더 권력 구조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안적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검은 수녀들」은 「검은 사제들」의 스핀오프로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나, 남성 사제가 중심인 「검은 사제들」과 달리 주변화된 소수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통적 구마 서사를 전복한다. 또한 오컬트 장르의 문법을 비틀어 악이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배제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그로 인한 인간의 행위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나아가 정석으로 여겨지는 구마 예식이 실패한 문제를 혼종적이고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화된 소수성이 윤리적 실천의 근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여성에게 부여된 부정성을 탈전유함으로써 여성 혐오의 맥락을 전복하고 윤리적 실천의 근거로 전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은 수녀들」은 소수자들의 연대와 윤리적 실천이 이분법의 경계를 허무는 대안적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문핵심어: 검은 수녀들, 검은 사제들, 오컬트 영화, 공포 영화, 기독교, 이분법, 가부장제, 소수성, 혼종성, 탈전유, 재의미화, 여성 혐오

1 들어가며

「검은 수녀들」은 한국판 「엑소시스트」로 화제를 일으키며 오컬트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준 「검은 사제들」[1]의 스핀오프로, 악령 들린 소년을 구하려는 수녀들의 헌신적인 노력[2]을 다룬다.

---

1 백솔미, 「[이 영화] 한국판 '엑소시스트'로 화제 '검은 사제들', 오컬트 장르 인기 견인 한 몫」, 『스포츠동아』, 2018.10.17., https://m.site.naver.com/1M8He, 최종 검색일 2025.04.24.

2 박권일, 「악령을 퇴치하려는 행동하는 수녀들의 모험 '검은 수녀들'」, 『월간 리뷰』 2025년

영능력자이자 수녀인 유니아는 강력한 악령인 '12형상'이 씌인 희준을 구하기 위하여 성직자가 아닌 수녀는 성무(聖務)를 진행할 수 없다는 교회법상의 금기에 맞선다. 나아가 영능력자인 수녀 미카엘라를 설득하고 비규범적인 수단도 불사한 유니아는 끝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희준을 구원한다.

구원의 자격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수녀들」[3]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연대를 보여주는 "뭉클한 오컬트 드라마"[4]로 기획되었으나, 악령의 혐오 발언[5]과 잉태를 통해 악마를 봉인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모욕적으로 다루었다[6]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7] 이에 제작사 측에서는 해당 비판에 대한 답으로 악마의 특성[8] 및 전복적 의도[9]를 제시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원작「검은 사제들」과의 비교선상에서 보았을 진행이 늘어진다는 점이나 문제 해결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오컬트 장르의 짜릿함"이 부족하다[10]는 의견과 초반부터 반복되는 구마 시도로 인하여 임팩트가 약해졌다는 평가[11]

3월호, 리음아트앤컴퍼니, 2025, 127쪽.

3 최영주, 「"'검은 수녀들', 구원의 '자격' 누가 부여하나 질문서 시작"[엔딩크레딧]」, 『노컷뉴스』, 2025.02.12., https://m.site.naver.com/1M8Hh, 최종 검색일 2025.04.24.

4 최영주, 「수녀와 무당이 구마를… '검은 사제들' 감독 "중요한 건 마음"[EN:터뷰]」, 『노컷뉴스』, 2025.02.05., https://m.site.naver.com/1M8Hy, 최종 검색일 2025.04.24.

5 유해, 「마녀·괴물·영매의 연대, 아름답지만… 김 빠진 '검은 수녀들'」, 『여성신문』, 2025.02.04., https://m.site.naver.com/1M8HO, 최종 검색일 2025.04.24.

6 이진민, 「송혜교의 쌍욕과 자궁 비하… '검은 수녀들'의 모호한 정체성」, 『오마이스타』, 2025.01.27., https://m.site.naver.com/1M8HX, 최종 검색일 2025.05.06.

7 홍수정, 「'검은 수녀들'의 문제적 결말」, 『PD저널』, 2025.02.03., https://m.site.naver.com/1M8I4, 2025.04.24.

8 이유채, 「[인터뷰] 끝까지 팽팽한 감정선으로, 「검은 수녀들」 권혁재 감독, 오효진 영화사집 제작이사」, 『씨네21』, 2025.02.08., https://m.site.naver.com/1M8Ia, 최종 검색일 2025.04.24.

9 최영주, 「유니아는 왜 몸에 악마를 가뒀나…제작자가 풀어준 '검은 수녀들'[엔딩크레딧]」, 『노컷뉴스』, 2025.02.12., https://www.nocutnews.co.kr/news/6291612, 최종 검색일 2025.04.24.

10 서지현, 「'검은 수녀들', 시도는 좋았으나 [무비뷰]」, 『스포츠투데이』, 2025.01.23., https://www.stoo.com/article.php?aid=98524742183, 최종 검색일2025.04.24.

11 최영주, 「'검은 수녀들'은 왜 금기를 깨고자 했을까」, 『노컷뉴스』, 2025.01.24., https://

또한 제기되었다. 이는 "'검은 사제들'의 그림자를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가 '검은 수녀들'의 과제"[12]라는 논의를 넘어 작품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은 같은 세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오프닝 구성 및 구마라는 핵심 사건을 공유한다. 그러나 전자가 남성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정석적 구마 서사를 제시했다면, 후자는 주변화된 소수자를 주체로 삼아 비정통적이고 혼종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두 작품은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지만 주인공의 성별 차이가 구마의 수행 주체, 문제 해결 방식, 서사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검은 수녀들」의 서사적·담론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은 사제들」과의 비교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검은 수녀들」의 혐오 발화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 장르 문법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검은 수녀들」의 저항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검은 수녀들」에 나타나는 소수적 저항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를 선/악, 남성/여성, 합리/비합리, 과학/미신, 정상/비정상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수와 소수 간의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담론으로 작용함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종교와 젠더 권력의 결합이 억압적 체계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현실 문제로서의 종교를 지적함으로써 기존의 오컬트 문법을 넘어서는「검은 수녀들」의 특성을 규명하려 한다.

나아가 소수자들의 '비공식적'인 행위가 혼종성(hibridity)과 탈전유(expropriation)를 통해 구현되며, 나아가 '기준'으로서의 '공식'을 넘어서는 전환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분법적 세계관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소수적 저항성의 가치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www.nocutnews.co.kr/news/6282878, 최종 검색일 2025.04.24.

12 위의 글.

2 같지만 다른 세계: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

2.1 가장 오래된 가부장제로서의 기독교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를 제재로 한 영화 「콘클라베」의 감독 에드워드 버거가 자신의 영화에 대해 "본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장제에 관한 이야기"[13]라고 언급한 것은 기독교에 내재한 가부장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시사한다.

기독교의 이분법적 체계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최후의 심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와 '하느님 아버지'로 나타나는 남성 유일신이 중심이 되는 체계, 남성으로부터 비롯된 여성이라는 신화는 현실로 확장되어 남성만이 사제가 될 수 있는 종교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기독교 성서는 단순한 영적 텍스트가 아니라 특정한 담론으로 작동하며, 현실의 식민주의와도 관계를 맺음으로써[14] 합리/미합리, 과학/미신과 같은 이분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곧 다수의 소수 지배 정당화를 위한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다수를 보편·정상·합리에, 소수를 특수·비정상·비합리로 정의한다.

「검은 수녀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이분법적 체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검은 사제들」과 비교할 때 남성 성직자가 제도권의 권위와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 수녀는 구마 수행 자격과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젠더 권력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은 구마라는 중심 사건을 공유한다. 「검은 사제들」에서는 소녀 부마자(付魔者)에 깃든 악령을 베테랑 사제와 신참 사제가 힘을 합쳐 구마하며, 「검은 수녀들」에서는 소년 부마자에 깃든 악령을 베테랑 수녀와 신참 수녀가 힘을 합쳐 구마한다. 단순한 성별 반전 스핀오프로 읽힐 수 있는 「검은 수녀들」은 해당 지점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영화의 오프닝은 영화에 있어 주요한 오컬트 개념들이 관련 이미지와 함

13 "the movie is essentially about the oldest patriarchy in the world.", Christopher Reed, 「A Conversation with Edward Berger (CONCLAVE)」, Hammer to Nail, 2024.10.25., https://www.hammertonail.com/interviews/edward-berger, 최종 검색일 2025.03.25.

14 R. S. 수기르타라자, 양권석·이해청 역,『탈식민주의 성서비평』, 분도, 2019, 53-54쪽 참조.

께 디졸브되는 형식으로 제시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은 사제들」	「검은 수녀들」
구마(악령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예식)	구마(악령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예식)
장엄 구마 예식(교회법 제 1172조에 따라 특별히 집전될 수 있는 퇴마 의식)	-
사제(주교와 신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제(부제품을 받아 사제를 돕는 성직자)	수녀(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한 여성 수도자) 신부(미사를 비롯하여 성무를 집행하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
부마자(악령이 몸속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	부마자(악령이 몸속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
12형상(부마의 징후들로 장미십자회에서 일련번호를 분류한 악령의 종류)	장미십자회(교황청에서 악령들에 대적하기 위해 만든 단체) 12형상(부마의 징후들로 장미십자회에서 일련번호를 분류한 악령의 종류)

[표1]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의 오프닝 구성

영화 전개와 이해를 위해 제시되는 개념들의 흐름은 핵심 사건인 구마로 시작하여 주인공, 수혜자와 대적자로 구성된다. 「검은 사제들」의 경우 장엄 구마 예식-사제-부제로 진행됨으로써 문제 해결 방식과 주인공의 특성을 제시하는 한편, 「검은 수녀들」의 경우 예식이 제외되고 수녀-신부로 제시된다. 이는 “성무를 집행하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인 신부와 달리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했으나 “장엄 구마 예식”을 진행할 수 없는 “여성 수도자”일 뿐인 “수녀”의 특성을 드러내며, 이야기가 “사제”의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검은 수녀”로 불리는 해방수녀회 소속 수녀 유니아는 사제 안드레아가 실패한 장엄 구마 예식을 마무리하고 희준에게 씌인 악령을 억누르면서 등장한다. 장엄 구마 예식은 「검은 사제들」에서와 동일하나, 「검은 수녀들」에서는 해당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의식을 잃은 희준은 바오로 신부의 담당 환자가 된다. 바오로는 영적 현상을 믿지 않는 인물로, 희준의 어머니가 자식을 치유하기 위하여 불교식 의례 구병시

식(救病施食)[15]을 진행한 것에 대해 “나약한 인간들”이 미신에 휘둘린다고 책망한다. 그는 희준 어머니에게 자신의 책『빙의의 정신분석과 치료』를 건네며 희준은 정신질환자이며 이는 신앙의 시험이라고 단언한다.

이처럼 바오로는 이성/감성, 육체/영혼, 과학/미신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와 더불어 믿음/불신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저에 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희준 어머니가 안드레아와 유니아를 언급하자 바오로는 즉각 “수녀요? 아니, 서품도 못 받은 수녀가 아이 장엄 구마를 치렀다고요?”라고 묻는다. 즉 바오로는 구마 자체보다 수녀가 구마를 진행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함을 알 수 있다.

바오로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입장으로 대변된다. 유니아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스승이자「검은 사제들」의 주인공인 김범신 베드로 신부나 최준호 아가토 신부[16]에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교는 “수녀”가 이를 진행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다.

장미십자회 소속 신부인 베드로의 제자이자 “기도발이 그렇게 좋”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니아에 대한 사제들의 입장은 “수녀가 무슨”으로 귀결된다.「검은 사제들」에서의 베드로 또한 장엄 구마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부딪히기는 하나 주교의 비공식적 지원 하에 곧 해소된다. 구마품 신부이자 장미십자회 소속인 베드로는 교황청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교황청에서 보관하는 성물인 프란치스코의 종 또한 무리 없이 구마에 활용한다.

그러나 ‘12형상에 씌인 부마자를 구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수녀’ 유니아에게 교회는 구마를 방해한다는 차원에서는 악령보다 지독한 방해물로 작동한다. 여성을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법상 개인의 능력과 신앙은 무용해지며, 구마에 필요한 성물은 장미십자회 소속인 베드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간신히 얻은 성물도 구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바오로의 관리 하에 들어간다.

구마 경험도 믿음도 없는 바오로가 구마를 주재하는 것에 반발하자 주교는

15 원명, 성청환 정리,「4. 시식(施食)」,『법보신문』, 2025.02.17., https://m.site.naver.com/1M8Ii, 최종 검색일 2025.04.25.

16 최준호 아가토는「검은 사제들」에서는 김범신 베드로 신부의 부제로 활동하나, 그보다 미래 시간대인「검은 수녀들」에서는 신부로 등장한다.

“수녀는 구마 의식을 진행할 자격 조건조차 안” 된다고 대답한다. ‘비공식적 구마’이기 때문에 성물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또한 동일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검은 사제들」의 상황과 대비된다. 주교는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 “당신의 능력과 영성은 오직 김범신 베드로가 보증할 뿐” “당신은 장미십자회 소속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일축한다. 유니아가 장미십자회 측에 연락한다면 자신에게 성물을 넘길 수 있느냐는 물음에 주교는 그것이 “구마보다 더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를 통해 신부와 수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단순히 인물들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내재한 이분법적 가부장제에 기반함을 알 수 있다. 「검은 사제들」에서도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종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베드로의 구마를 반대하는 한국 교회의 입장과 비과학적이며 미신이라고 여겨지나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장미십자회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검은 수녀들」에서는 「검은 사제들」에서 대립하던 두 입장이 가부장제로 한데 묶여 여성 주인공과 대립함을 보여 준다. 이는 「검은 수녀들」의 오프닝 부분에서 핵심 사건-주인공-수혜자-대적자 순으로 제시되는 개념 중 장미십자회가 12형상과 함께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를 시사한다.

2.2 오컬트를 넘어서는 ‘오컬트’

「엑소시스트」는 오컬트 장르의 대표작으로, 소녀에게 빙의한 악령을 두 신부가 구마하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종교적 지식과 이성적 추리를 통해 초자연적 신비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엑소시즘(Exorcism)의 관습이자 전형적인 오컬트 장르 관습의 하나[17]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종교적 의식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주요 해결 방안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검은 사제들」 및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 장르의 문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오컬트의 특징은

17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 한국적 장르 서사와 미스터리①-오컬트와 미스터리의 친연성과 교차성」, 『계간 미스터리』 제75호, 나비클럽, 2022, 273-274쪽 참조.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미지의 존재가 일으키는 현상에서 기인한 공포를 다루며, 그 공포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을 악령과 같은 초현실적 존재의 활동으로 표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 혹은 종교의 사투를 그린다[18]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장르로서의 공포는 위협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죽음, 초자연, 미지의 것, 타자에 대한 두려움, 정체성의 상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게 한다.[19] 이처럼 서구를 뒷받침해온 종교, 이성, 과학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감각이 「엑소시스트」에 반영되었다. 즉 자신들이 만든 문명에 대한 회의, 종교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부재하다는 자각, 나약한 인간을 위협하는 인지 영역 밖의 존재들이라는 공식을 유지하며 서구인들의 공포와 불안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가 「엑소시스트」 이후 서구 오컬트 장르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의[20]는 타당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의 차이가 나타난다. 「검은 사제들」은 「엑소시스트」에 제시된 서구 오컬트 장르의 공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검은 사제들」의 대적자인 12형상 마르베스는 모든 악의 배후이자 원인으로 나타난다.

(1) 빌어먹을 바흐. 내가 형수를 강간하라고 했었지. 바흐, 용기 없던 고자 새끼. (2) 고통, 질병, 기근, 전쟁, 평화 속에 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역사를 보란 말이다. (3) 342일 뒤 무너지는 다리, 78명 사망. (4) 7803일, 부서지는 빌딩 다섯 개, 5680명 사망. (5) 6682일 뒤 너희들이 스스로 인간을 만들고 (6) 40275일 마실 물이 없고 (7) 85938일 검은 풍선이 터져 7284430명이 죽고 (8) 오존층 소멸 (9) 90325일 너희들 반은 타 죽을 것 (10) 세상의 빛을 끄려고 왔다.

[표2] 「검은 사제들」 악령의 배후 관련 발언

18 이민형, 「대중문화에 반영된 종교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기독교의 과제: 오컬트 장르물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86호, 한국실천신학회, 2023, 813쪽.

19 Bryan Stone, “The Sanctification of Fear: Images of the Religious in Horror Films”, *Journal of Religion and Film Vol. 5*, Issue 2,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2001, p.5.

20 이민형, 앞의 글, 817쪽 참조.

구마를 통해 마르베스가 시인하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공포-오컬트 장르에 내재한 불안과 같은 궤를 지닌다. 의식용 음악으로 사용된 곡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는 성경 구절을 사용한 칸타타로, 작곡가인 바흐는 매 주일마다 새로이 칸타타를 만듦으로써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불린다.[21] 마르베스는 이처럼 신실한 바흐에게 "형수를 강간하라고" 종용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주목할 점은 유혹 등으로 나타나는 악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역사의 비극에 늘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기실 예언이나 저주가 지닌 힘은 실제 그것이 작동하였을 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검은 사제들」에서는 마르베스가 베드로의 부제였던 박 수사의 어머니에게 퍼부은 유방암의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것[22]과 후임으로 선택된 아가토에게 "네 팔을 봐. 그 썩어 가는 매독 같은 팔을."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팔이 오염되는 모습을 본 아가토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마르베스의 저주가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저주 또한 작동하리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너지는 다리", "부서지는 빌딩", "너희들이 스스로 인간을 만들고", "마실 물이 없고", "검은 풍선이 터"지고 "오존층 소멸", "너희들 반은 타 죽을 것"이라는 마르베스의 예언은 서구 오컬트의 기저에 존재하는 공포의 뿌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

21 이대웅, 「바흐의 칸타타, 시간과 공간 초월한 예술」, 『크리스천투데이』, 2022.02.2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5749, 최종 검색일 2025.02.28.

22 「검은 사제들」에서의 아가토의 선임인 박 수사는 베드로와의 구마 도중 박 수사는 악령을 보지 말라는 김 신부의 말을 듣지 않고 악령을 마주보았으며, "내 목소리를 기억해라. 네 어미의 유방에 돌덩어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악령의 저주를 듣게 된 후 구마를 그만둔다. 박 수사는 어째서 갑자기 그만두느냐는 최 부제의 물음에 "몸도 좀 안 좋고, 고향의 부모님한테 가 봐야 할 일도 좀 있"다고 대답한다. 고향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박 수사는 갑작스레 성질을 부리며 대답을 회피하고,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를 박대하며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른다. 이후 아가토가 "매독 같은 팔"이라는 저주가 실현됨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자 악령은 "가서 말해.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저기 저 미친놈 하나만 있다고."라고 명령한다. 즉 박 수사가 구마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과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악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는 악령의 저주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르베스의 예언은 수많은 죽음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생물로서 지니는 근본적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짚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이러한 공포가 단순히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인간을 만"든다는 예언이 과학 기술의 승리가 아닌 저주 사이에 존재함은 한편으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기독교적 진리의 파훼이자 금기로서 인간에 의한 인간 탄생이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치 판단의 혼란, 이성과 과학으로 빚어진 근현대 사회의 가치 체계 붕괴에 대한 서구적 불안과 공포를 암시한다.

둘째는 저주가 과연 '악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다. 건축물 붕괴 사고의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안전진단이나 점검, 지속적 관리를 등한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3] 이는 생명보다 시장가치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24]에서 비롯된다. 테러로 인한 붕괴의 경우에도 각국의 복잡한 정치·역사적 요소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검은 풍선"으로 은유되는 핵폭발과 그로 인한 멸망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이다. 문명을 몇십 번이고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1만 3천개로 추산되는 전세계 핵무기 보유 수[25]와 상호확증파괴의 논리는 타자에 대한 거부와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발생한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과 "오존층 파괴"는 환경 파괴의 대표 예시로, 영원한 발전이라는 자본주의적 환상에 복무하며 자연을 무한정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다. 「검은 사제들」이 개봉된 2015년은 오존층 파괴가 전세계적 문제로 다루어지던 시기[26]였다. 1985년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 사진이 발표

23 김태환, 「붕괴사고」, 국가기록원, https://m.site.naver.com/1M8Iu, 2006.12.01., 2025.04.29.

24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 역,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창비, 2023, 144쪽.

25 이혜진, 「[북스&] 세계 종말까지 72분… '핵전쟁의 지옥'을 보다」, 『서울경제』, 2025.02.14.,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YUFNDS3, 최종 검색일 2025.04.29.

26 유은영, 「기상청, '오존층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가지: 2014년판' 발간」, 『글로벌이코노믹』, 2015.07.17., https://m.site.naver.com/1M8Iz, 최종 검색일 2025.04.29.

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오존층은 회복되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파리기후협정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195개 당사국 중 단 10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한 내에 발표한 현 상황[27]은 악령 때문이 아니라 무한한 경제 발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세상의 악이 초자연적인 힘과 악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엑소시스트」적 서구 오컬트의 문법, 사탄과 같은 초자연적 악의 상징이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해체되기 어려운 까닭은 괴물이나 악마적 인물에 악을 투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28]이다. 즉 문제 발생의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향유자가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를 소거한다.[2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검은 수녀들」의 가미긴은 초자연적 악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행의 원인이라는 서구 오컬트의 전형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 (1) 나는 1791년에도 1846년에도 1866년에도 있었다. (2) 우리는 너희들이 칭송하는 103명의 죽음에도 관여했다. (3)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그 수는 이 아이를 시작으로 292명, 471명, 2340명까지 불어날 것이다. 아이들은 뭍에서 산에서 하늘에서 죽어갈 것이다. (4) 나는 너희 인간이 서로 겨누는 총구 속에서도 오염된 우물물에서도 사막 위에 세운 도시에서도 나는 중력이 존재하는 곳 어디든 너희와 함께하였도다. 중력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나는 신이다.

[표3] 「검은 수녀들」 악령의 배후 관련 발언

가미긴과 마르베스는 인간을 부정하는 악령이자 줄곧 인간사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가미긴의 경우 마르베스와 달리 근현대적 공포의 배후로 나

27 유준상, 「'1.5도 지킴이' 파리기후협약 유명무실? …각국 NDC 제출 미루는 이유」, 『여성경제신문』, 2025.04.09., https://m.site.naver.com/1M8IL, 최종 검색일 2025.04.29.

28 Bryan Stone, op.cit., p.20.

29 이채영,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4집, 중앙어문학회, 124쪽 참조.

타나지 않는다. 가미긴이 지목하는 각 시기는 1791년 신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 종교 박해 시기와 맞물릴 뿐이다. 또한 "너희들이 칭송하는 103명의 죽음에도 관여"하였다는 것은 한국천주교의 103위 성인을 뜻하는데, 성인명부에 기록되며 축일이 제정되고 이름이 세례명으로 사용[30]될 정도로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서도 자신이 개입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힘을 과시함을 뜻한다.

나아가 가미긴은 "'이제' 아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자 미래, 순수의 상징을 파괴하는 악으로 형상화된다. 즉 가미긴의 경우 마르베스의 경우처럼 현대인의 책임과 공포를 투사하는 악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려는 용납 불가능한 악, 스스로를 신으로 참칭하는 오만한 악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가미긴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물리쳐야 할 악으로 형상화되며, 「검은 수녀들」은 현대 사회의 문제 및 불안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서구 오컬트 장르의 위험성과 거리를 둔다.

한편 가미긴은 "도대체 뭘 했다고 벌써 내 이름을 묻는 거냐", "매번 간청도 없이 명령부터냐" 라며 일갈하는데, 이 또한 관객으로 하여금 구마 예식의 전형성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체계에 기반한 오컬트 장르의 문법에 의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오컬트 장르에서 사제로 표상되는 종교는 초자연적 악에 맞서는 선으로 나타남으로써 명확한 선악 구도를 이룬다. 이는 「검은 사제들」에서도 나타나는데, 「검은 사제들」에서도 베드로의 구마를 저지하는 사제들이 존재하나 그들 또한 그들 나름의 옳은 일을 행한다.

베드로의 구마에 부정적이었던 수도원장은 작은형제회의 지하실에서 세월호 참사 플랑을 만들며 시위대를 지원한다. 아가토에게 구마 장면을 녹화하라고 한 학장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만졌다"는 영신의 발언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부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선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검은 수녀들」에서의 사제들은 유니아의 자격 없음만을 강조하며

30 윤승용, 「천주교 103위 성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6030, 최종 검색일 2025.04.29.

구마를 방해하는 '악한' 인물들로 나타난다. 동일한 "비공식적" 구마임에도 베드로에게는 "비공식"이 지원의 뜻으로, 유니아에게는 금지의 뜻으로 작동하며, 겨울부터 여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열 명이 넘는 사제들"을 지원받은 베드로와 달리 유니아는 한 번의 허락조차 받아내기 어렵다. "수녀가 무슨"이라는 편견으로 유니아를 배척하는 사제들의 모습은 선의 자리에 위치한 종교라는 오컬트적 문법을 허물고 종교를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한다.

이처럼 모든 비극의 배후로서 지목되지 않는 악령, 선의 자리에서 벗어난 종교는 서구적 오컬트 문법을 벗어나며, 이러한 맥락에서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를 넘어서는 '오컬트'로서 관객들에게 현실 문제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직시하도록 한다.

3 소수들의 저항: 혼종성과 탈전유

3.1 차선이자 최선으로서의 혼종성

사제가 아닌 수녀는 구마를 진행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식적이며 주류인 다수적(major)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이며 비주류인 소수적(minor)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검은 수녀들」의 서사적 특성이 된다.

유니아는 희준을 빼내기 위해 바오로의 제자인 미카엘라 수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과 미카엘라가 영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능력자는 "인간과 악마가 낳은 저주받은 아이" "귀태(鬼胎)"로 불리며, 다수/소수, 정상/비정상, 이성/비이성이라는 틀에 있어 후자에 속한다. 미카엘라는 '무당 될 팔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릴 적 바오로의 봉쇄수도원에 보내지게 되는데, 친구가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스스로를 억누르고 '정상성'을 점유한 다수에 편입되기로 마음먹으며 "AI" 같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미카엘라의 자기 부정은 폭식으로 발현되는데, 이는 유니아가 영능력자임을 언급할 때 아이스크림을 커다란 통으로 해치우고 이어 탕후루까지 먹어치우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봉쇄수도원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의 자살 장면 및 자신들은 귀태로 불린다는 친구의 음성과 더불어 맨손으로 케이크를 우겨넣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연결된다.

여성의 몸과 행동은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며, 폭식은 인정받지 못한 욕구와 이에 대한 갈망이자 욕구 그 자체에 대한 자기 체벌적 강박[31]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미카엘라는 소수에 대한 억압을 신체를 통해 드러낸다.

세상을 두 부류로 가르고 한편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이분법적 체계가 다수와 소수를 구분할 때, 유니아는 여러 방면에서 '소수'에 속한 인물이다. 여성이자 수녀이며, 영능력자이자 청각 장애인이며, "가방끈이 짧"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니아의 경우 소수성에 사로잡히거나 다수에 편입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이분법적 태도를 보여준다. 다수에 속하려는 미카엘라는 효원보살에게 희준을 데려가는 유니아를 비난한다. 그러나 유니아는 "남들 눈엔 너나 나나 무당이나 다 미친년들"이라고 대꾸함으로써 다수와 소수, 옳음과 그름,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선을 무시하고 혼종적 해결 방안을 시도한다.

혼종성(hibridity)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적 체계에서 벗어나고 이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담론 질서를 붕괴할 수 있는 힘을 내포한다.[32] 이분법적 담론 질서의 핵심은 구분과 이를 가능케 하는 경계의 공고함에 있으며, 주체와 타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적 관계에 내재한 혼종성은 지배 담론의 내적 갈등과 모순을 반영[33]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불교, 무속과 타로가 뒤섞이는 「검은 수녀들」의 해결 방안은 혼종적이다. 중심에 위치한 기독교의 방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심화된 기독교뿐 아니라 주변화된 여타 종교의 혼합[34]으로 해결함으로써 지배 문화의 본질주의적 순수성을 흐리고 권위를 전복함은 문화적 이단으로서의 혼종성[35]의 특징

31 캐럴라인 냅, 정지인 역,『욕구들』, 북하우스, 2021, 330-335쪽 참조.

32 이경원,『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410쪽 참조.

33 위의 책, 458쪽 참조.

34 "다양한 문화적 제도들의 혼종(hybrid)된 형식들 안에 자리를 잡은 주체들은 다이애나 프라이든이 '오염'이라고 부른 이종족 혼교(잡혼)와 같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려질 수 있다." 길버트 헬렌·조앤 톰킨스, 문경연 역,『포스트 콜로니얼 드라마: 이론·실천·정치』, 소명, 2006, 30쪽.

35 김지현 외,『탈식민주의의 얼굴들: 파농·사이드·바바·스피박』, 역락, 2012, 132-133쪽 참조.

을 보여 준다. 유니아는 기독교 수도자이면서 여타 종교의 힘을 빌리는 데 주저하지 않으나, 이러한 혼종적 해결 방안은 타의에 의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해결 방안인 장엄 구마 예식은 「검은 사제들」에서 '정석'이자 '정답'으로 제시된다. 이는 "교회법 제1172조"에 해당하며, 베드로가 여동생 가게에서 저녁을 먹는 도중 흘러나오는 뉴스는 교황성 소유의 일간지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구마를 인정했다는 보도를 전함으로써 베드로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성무를 집행할 수 없는 수녀로서는 베드로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니아가 선택하는 혼종적 방식이란 차선책의 성격을 띤다.

효원보살은 희준 또한 미카엘라나 유니아, 자신과 같은 "귀태"라 진단하고 굿을 진행하나 실패하면서 희준은 바오로의 봉쇄수도원으로 보내진다. 바오로는 봉쇄수도원에서 악령을 마주한 후 자신의 아집을 깨닫고, 유니아는 희준을 구하다 부상을 입는다.

안드레아의 장엄 구마 예식, 효원보살의 굿, 바오로의 봉쇄 치료가 실패하며 이야기는 난항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타개할 가능성은 바로 혼종성에서 비롯된다. 유니아가 미카엘라에게 희준이 간직하던 타로 카드가 아이를 살렸다고 알리자 미카엘라는 계율을 무시하는 유니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분통을 터뜨린다. 자신도 유니아도 모두 괴물 같다는 자기혐오는 "어떻게 도망쳐서 살아왔는데"라는 말로 나타난다. 이에 유니아는 "그냥 직면"하라고 대답하며, 구마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자백. 괴물의 진짜 이름."이라고 답한 후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미카엘라를 바라본다.

이후 화면이 전환되고 미카엘라는 희준이 지니고 있던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의 의미를 파악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미카엘라의 타로 카드는 어릴적 봉쇄수도원의 '귀태' 친구에게 받은 것으로 이분법적 체계에서는 반이성과 미신에 속하며, 『빙의의 정신분석과 치료』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이분법적 체계에 억눌렸으나 끝내 없애지 못한 영능력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유니아가 "진짜 이름"을 말하고 미카엘라에게 "진짜 이름"을 되물었을 때, 미카엘라는 자신의 이름을 상기하는 동시에 영능력자라는 소수적 정체성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를 얻는다. 그로 인해 타로 카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베드로의 열쇠와 '신성을 경험한 자 셋'이라는 해결 방안을 찾는다.

한편 희준이 지니던 타로 카드는 효원보살의 신아들이 준 것으로, 무당 어머니를 두었으나 절에 버려져 동자승으로 살다 효원보살 밑으로 들어갔으나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다 "점사도 시원찮은" 인물로, 부적을 쓸 능력조차 없으나 희준을 염려하는 마음에 쥐어준 타로 카드가 희준을 살리는 열쇳말이 된 것이다.

구마품 사제 안드레아가 부마자가 되자, 유니아는 효원보살을 통해 길일을 받고 담언법사가 구마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그 날은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담언법사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다. 이들은 무속인이라는 점에서는 소수이나 권력, 자본, 제도라는 다수의 질서에 종속되거나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물들이다.

결국 구마에 참여하는 자는 말더듬이에 영능력도 "시원찮은" 효원보살의 신아들이다. 기도의 핵심은 진심 아니겠느냐는 유니아의 말과 자신도 구마는 처음이라는 미카엘라의 말에 설득된 신아들은 곶은 과일과 경문을 훔쳐 바닥에 상을 차리고 홀로 북을 두드리며 경문을 왼다. "귀태" 셋은 "귀태" 희준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의 구마를 진행하며, 신아들은 경문이 날아가고 북이 찢어지자 합장한 채 희준의 이름을 부르며 힘내라고 소리치며 기도한다. 이들의 구마는 영능력, 제물(祭物), 절차 등 여러모로 제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진심"을 통해 구마를 완성함으로써 제도 밖 소수자, "귀태"는 "신성을 경험한 자"로 거듭난다.

구마 시작 전 매뉴얼을 묻는 미카엘라에게 유니아는 "검은 수녀한테 매뉴얼이 어디 있"느냐고 답하는데, 이는 사제가 아닌 수녀이기에 제도권 밖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마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장미십자회 소속인 베드로가 유프라테스, 라인, 나일강에서 교황 비오 9세, 그레고리오 16세, 레오 9세의 축성을 받은 성수를 성수채로 조금씩 뿌리는 것과 달리 '서품도 못 받는' 유니아는 정체불명의 성수를 20리터짜리 약수통에 담아 들이붓는, 가미긴조차도 "무식"하다고 할 만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 유니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번 구마의 원칙임을 상기한다. 그 말대로 유니아는 흰 고깔 안에 부적을 붙여 희준에게 씌우고, 희준의 조상신의 도움을 빌기 위해 삼신할미의 상징인 목화꽃을 마련한다. "무당인지 수

녀인지"라며 비꼬는 미카엘라의 말에 부마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래도 저희(는) 수녀"라는 핀잔에 구마 승인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가문의 수호천사를 부른다고 반박한다.

무속, 기독교, 가문 신앙 등으로 나타나는 비정통적 혼종성이란 '정석'이 허용되지 않는 소수에게 차선책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석적 방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석적 방안이 정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다. 「검은 수녀들」의 첫 장면에서 정석적인 안드레아의 장엄 구마 예식은 실패하였으나 기독교와 무속, 불교가 한데 섞인 유니아의 구마는 희준의 몸에서 가미긴을 빼내는 데 성공한다.

즉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혼종성이 최선책으로 작동함은 이분법적 체계를 무력화하는 혼종성의 가치를 드러내고 탈이분법적 관점의 의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차선책'은 주변화된 소수들의 전략이자 이분법적 체계의 핵심인 경계를 교란하며, 기존 진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법적 체계가 배제했던 가능성을 가시화한다.

이후 미카엘라는 유니아의 자동차를 물려받음으로써 유지를 잇는데, "유니아 수녀님께서 전부 다 가르쳤다"고 들었다는 아가토의 말에 미소를 짓는다.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억누르던 미카엘라는 이분법적 체계에 '순명(順命)하지 않는' 유니아를 통해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분법적 체계 안에서 타자화된 주체가 혼종성 안에 자리잡음으로써 자기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2 '여성'의 탈전유: 낙인에서 수단으로

「검은 수녀들」의 주인공 유니아는 오컬트 영화 「콘스탄틴」의 주인공 콘스탄틴을 오마주한 인물로, 헤비 스모커, 거친 말투, 뛰어난 영능력, 현장형 엑소시스트라는 점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유니아의 캐릭터성은 단순히 일탈적 스타일만을 확보하려 한 것[36]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과의 상호텍스트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체제에 복무하는 '남성 영웅'의 전형을

변주하고 전복하는 '여성·소수자 영웅'을 새로이 제시하며 장르적 규범과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서사를 구현하는 인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콘스탄틴과 유니아 모두 영화 초반부 암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콘스탄틴의 경우 폐암, 유니아의 경우 자궁암을 진단받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콘스탄틴에게 있어 시한부 판정은 공포로 작동한다. 콘스탄틴이 구마에 전념하는 까닭은 자살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독교의 처벌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콘스탄틴은 자살 기도로 인한 지옥 체험 이후 사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마에 헌신한다. 어디에서든 담배를 피우고 악령에게 욕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며 천사 혼혈종인 가브리엘과 대거리하는 콘스탄틴은 일견 반항적으로 보이나, 그는 누구보다 기독교 계율에 충실히 복무하는 인물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콘스탄틴은 곧바로 가브리엘을 찾아가 수명을 늘려 달라는 거래를 시도하고 지금껏 악령을 해치운 공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며 항의한다.

이와 달리 유니아에게 시한부 판정은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다. 유니아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직후 다음 진료를 거부하고 희준의 주치의인 바오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유니아는 부마자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 규율에서 벗어난 수단을 마다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교회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탈계율적 인물[37]로 나타난다.

가미긴은 영화 초반 유니아에게 "인간 중에 가장 끔찍하게 죽을 것이다. 불에 차 고통에 차 울며 네 신을 저주하며 죽어갈 것이다. 네 손에 묻힌 모든 악마들

---

36 유해, 앞의 글.

37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지닌 헤네시 신부의 지원, "교황 암살 시도에 사용된 탄환 조각" 및 "요단강에서 떠온 성수", 공포 영화 「아미티빌의 저주」에 차용한 "아미티빌의 딱정벌레, "용의 숨결" 같은 혼종적 오컬트 물품을 제공하는 동료 비먼, 천사 혼혈종 가브리엘과의 소통, "'그' 콘스탄틴"으로 칭해지는 명성, 죄를 사하여 주는 사제의 마지막 의식을 악마에게 협박용으로 행하는 콘스탄틴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자격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유니아는 구마를 하는 수녀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배제되며, 혼종적 방식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이단적 인물로 취급된다.

의 보혈이 씨가 되어 네년의 자궁을 북처럼 울릴 것"이라고 저주하는데, 자궁암은 바로 이 저주의 실현[38]이다. 이는 콘스탄틴의 폐암이 원한이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흡연의 결과일 뿐[39]이라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이때 악령이 뱉는 저주와 욕설은 신체 및 성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감각적·도덕적 측면을 아우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규정되는 혐오의 특성[40]과 연결된다.

「검은 사제들」	「검은 수녀들」
네 어미의 유방에 돌덩어리를 만들어 버리겠어. (박 수사) 이 오입쟁이야! (베드로) 이 씨발 좆같은 고깃덩이가 우리를 잡고 있어. 이년이 날 잡고 있어! (영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너희들 재판장은 대답이 없을 것이야. 더러운 고환 냄새나 풍기는. (예수) 수컷, 수컷! (아가토) 4년 뒤 너는 감옥에서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고 내가 다음 달 태어나는 조카의 눈알을 뽑아 버릴 것이야. 네 여동생의 자궁을 들어내 버리겠어. (베드로) 그 썩어 가는 매독 같은 네 팔 (아가토)	감히 겁도 없이/서품도 안 받은 암캐가 (유니아) 씨발년, 걸레년아 (유니아) 거짓말쟁이 암캐, 창녀 (희준 모) 신에게 겁탈당했다고 사기 치는 계집년, 신의 창녀, 더러운 암캐! (성모) 마리아가 낳은 새끼는 십자가에 매달려 뒈졌는데 새끼도 못 낳고 뱃속에 시커먼 종양이나 밴 채로 죽겠네? (유니아) 작두 타다 찢겨 죽어야 할 무당년, 귀신이랑 붙어먹은 년. (미카엘라) 감히 네가 날 네년의 썩은 자궁에? 그자에게 정결함을 약속한 그 더러운 곳에? 그래 이 미친년아 한번 해 봐. 어디 품어봐! 마귀로 다시 태어나마. 내 어미가 될 영광을 주지! (유니아)

[표4]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 악령의 저주 및 욕설 관련 발언
(괄호 안은 욕설 및 저주의 대상)

38 영화 초반에 가미긴을 구마하려 시도하던 안드레아는 부상을 입은 후 유니아에게 구마 관련 정보를 넘긴다. 떠나는 유니아를 바라보던 안드레아는 갑작스레 얼굴을 반복적으로 문지른다. 이후 안드레아는 부마자가 되며, 얼굴에 저주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때 안드레아가 얼굴을 문지르는 장면의 바로 다음 장면이 유니아의 MRI 검사 장면이라는 것은 안드레아와 유니아가 가미긴의 저주를 받았음을 암시한다.

39 "왜 하필 나야, 가브리엘? 개인적인 원한이지(It's personal), 그렇지? 교회에 잘 안 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헌금도 5달러 적게 해서? 도대체 왜?", "네가 일찍 죽게 된 건 15살부터 하루에 30개비씩 피워서 그래." 「콘스탄틴」, 개봉일 2005.02.18.

악령이 지닌 초자연적인 힘은 생명과 직결된 육체에 대한 저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혐오와 연결됨으로써 불쾌와 역겨움, 악에 대한 거부감을 강화한다. 눈과 같이 기능적으로 주요한 부위뿐 아니라 성적 부위에 저주가 깃들고 악령이 성적 비속어를 난무하는 것[41] 또한 성이 금기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작동한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신체는 취약성을 지닌 대상으로 구현된다. 「검은 사제들」의 악령 마르베스가 박 수사 본인이 아닌 박 수사 어머니의 "유방"에 "돌덩어리"를 만들겠다고 저주하는 것과 베드로에게는 감옥과 죽음을, 조카에게는 눈을 뽑겠다는 저주를 내리는 것과 달리 여동생에게는 "자궁을 들어내 버리겠"다고 저주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검은 사제들」의 굿 실패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마르베스를 실으려던 굿이 실패하자 신접을 시도하던 제천법사의 딸뿐만 아니라 앉은 채 북을 두드리던 세 무당은 치마폭이 젖을 정도로 심한 하혈을 겪는다. 이 장면은 무당들의 비명과 발버둥, 애원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그러나 정작 굿을 이끄는 남성인 제천법사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가지 않는데, 이를 통해 악령의 힘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신체가 취약한 대상으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피나 토사물, 배설물에 대한 혐오와 공포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현실의 상징 질서 안에서 완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체의 신화를 위협하는 비체(卑體, abjection)로서 혐오스러운 대상이 된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성기와 피의 결합인 하혈은 출산과 월경을 이유로 오염과 연결되는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의 역사[43]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공포 이미지임을

---

40 장서란, 「문학을 활용한 도덕시민교육연구 -혐오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5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227쪽.

41 「엑소시스트」의 악마가 소녀에게 씌여 성행위 흉내를 내고 십자가로 성기를 자해하며, 어머니를 잃은 신부에게 "네 어머니는 지옥에서 거시기를 빨고 있다"며 욕설을 퍼붓는 것, 성모상에 뾰족한 가슴과 남성기를 단 장면들은 사회적 터부인 성적 금기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는 악마의 부도덕성과 혐오스러움을 강조한다.

42 크리드 바바라, 손희정 역,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17, 42-43쪽 참조.

43 "여성괴물은 그녀가 상징계적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비체적인 존재로 구성된다. 여성괴물은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질서를 환기시키고, 모든 인간이 필수불가결하게 겪어야만 하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기에 대한 악령의 비하적 표현과 취약성의 낙인은 여성 혐오의 일면을 드러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을 타자의 자리에 두고 대상화하는 태도는 '악한' 존재의 특성으로 형상화되며, 현실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검은 수녀들」에서 유니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그가 여성이기에 '부적격'하다고 규정하는 이분법적 체계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유니아를 마주했을 때 가미긴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겁도 없이, 암캐가"라고 일갈하며 이어 "건방진 년, 서품도 안 받은 암캐"라고 소리친다. 여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구마 예식에 "감히" 참여한다는 것과 "서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날뛰는 가미긴의 태도는 "서품도 못 받은 수녀가 아이 구마를 치렀"느냐고 놀라는 바오로와 "수녀가 무슨"이라며 구마를 방해하는 사제들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이는 2장에서 다루었던 현실 문제로서의 종교의 이분법적 체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이분법적 체계가 바로 '악'임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악'에 저항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혼종적 구마 방식 및 탈전유(expropriation)로 나타난다. 버틀러는 발화를 통해 실제 효과를 생산하는 수행문과 혐오 발언을 연결지음으로써 사회적 수행문은 주체 형성의 핵심 요소이자 주체의 정치적 투쟁과 재형성에 핵심적[44]이라고 지적했다. 즉 혐오 발언은 단순한 모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수행문으로서 듣는 자를 타자의 자리에 종속시키고 듣는 자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재생산한다. 혐오 발언의

는 출생과 삶을 지나 죽음을 이르는 과정과의 끔찍한 연합을 통해 '상징계 질서의 나약함'에 주목하도록 한다. 결론으로, 나는 여성의 어머니 기능과 재생산 기능이 비체와 결부되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남성 괴물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괴물성의 원천으로 종종 구성되는 것은 바로 남근적 속성들이다.) 여성은 그녀의 본질 그 자체로는 전혀 비체적이지 않다. 대중적 담론에서 그녀가 괴물로 재현되는 것은 공포영화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의 작용이다. 이 기획은 남성의 성적 타자인 여성의 차이와 그녀의 괴물 같은 본질이 별 수 없이 묶여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이다." 위의 책, 161-162쪽.

44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16, 295-296쪽 참조.

권력은 혐오 발언자의 범위를 초월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45], 그 역사성이 발언의 힘으로 작동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여성 혐오가 얼마나 자연화되었는지는 악령과 사제가 여성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내포한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탈전유는 버틀러가 제시한 혐오 발언에의 대안이다. 이는 수행문에 대한 '탈공식화', 즉 혐오 발언이 겨냥한 의도의 맥락과 효과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것으로, 발신자가 의도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를 재의미화하는 것이다. 즉 혐오 발언의 힘이 관습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챈다면 그에 대해 비관습적으로 행위[46]함으로써 혐오의 역사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건방진 년, 서품도 안 받은 암캐"라는 모욕을 "엄마 매가 제일 아픈 거 알지?"로 응수함은 탈전유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유니아는 가미긴의 혐오 발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엄마", 가미긴을 "자식"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관계 구도를 전복한다. 이는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반전시켜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를 훈육의 대상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혐오의 언어를 저항의 언어로 전유한다.

이처럼 유니아와 어머니 모티프는 영화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안드레아를 영입하러 찾아갈 때 울려 퍼지는 「아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인 성모송(聖母誦)을 가사로 삼으며, 부마자가 된 안드레아에게 구마를 행하며 외우는 기도 또한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47]이다.

해당 기도에서 마리아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과 임무를 하느님께 부여받으신 위대한 천상의 여왕, 천사들의 모후"로, "천상 군대를 보내" "악마들을 쫓아"내어 "지옥으로 떨어트리"는 힘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를 통해 제시되는 악을 무찌르는 처녀-어머니라는 여성 영웅의 이미지는 유니아에게 투영되는데, 가미긴에 대한 유니아의 첫 평가가 "어린애 몸"을 차지한 "비겁한 놈"이라는 것과 더불어 희준을 지키려는 마음이 단순한 혈연적 본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명확해진다.

---

45 위의 책, 326쪽.

46 위의 책, 361쪽 참조.

47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남기옥 역, 『구마』, 성바오로, 2015, 281쪽.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은 부마자의 형상화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검은 사제들」에서 영신은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신자로 영화의 첫 장면에서 돼지에 봉인된 마르베스를 운반하던 신부의 차량에 뺑소니를 당한 후 부마자가 되나, 코마 상태에서까지 악령을 붙잡는 조력자 역할을 자임한다. 두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미십자회의 목적은 12형상을 물리치는 데 있다. 「검은 사제들」에서 장미십자회는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참사들을 전부 막"기 위해 영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베드로를 설득하며, 베드로는 결국 장미십자회의 의견에 따른다. 이는 숨이 끊어진 영신에게 "미안하다, 영신아. 이제 천국에 가서 편안하"라며 흐느끼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즉 「검은 사제들」의 소녀 부마자인 영신은 대의의 피해자임에도 악령 퇴치의 조력자를 자처하며, 끝내 대의를 위한 희생양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검은 수녀들」의 소년 부마자인 희준은 "신앙도 없는 어린아이"로 조력자 역할을 맡지 않으며, 악령으로 인해 죽음 충동을 느끼는 입체적 인물로 나타난다. 베드로는 「검은 사제들」에서와 달리 유니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를 살릴 것"을 당부하며, 장미십자회는 「검은 사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마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성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유니아는 장미십자회의 요구를 곱씹으며 희준 또래의 아이들을 바라본 후 구마에 임하는데,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선언은 구마의 목적이 다수를 위한 대의가 아니라 구체적 타자인 희준에게 있다는 방향성과 자신의 몸으로 악령을 봉인하겠다는 자기희생을 암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는 젠더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게 작동하는데, 「검은 사제들」에서는 남성 사제의 주도 하에 구마가 이루어지고 소녀 부마자를 통해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성 인물의 위치를 강조하는 반면 「검은 수녀들」의 유니아는 구마의 주체이자 제도적 권위를 전복하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인물이 피해자나 희생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서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로 재위치됨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는 수동적 피해 대상으로 고정되지 않고 주체적 결단을 통한 봉인의 매개로 형상화된다.

최후의 구마 시작 전 바오로는 유니아와 미카엘라를 축복한 뒤 자신의 흰 영

대(令帶)를 유니아의 어깨에 씌우고 물러난다. 영대는 주교, 사제, 부제가 전례 행사를 거행하며 착용하는 권위의 표시[48]로, 수녀가 이를 착용함은 교회법의 전복이자 교회법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부장제를 정면으로 거부함을 나타낸다.

구마 예식 내내 영대를 착용하던 베드로와 달리 유니아는 영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구마를 진행한다. 바오로의 영대는 희준을 눈을 가리는 데 사용될 뿐인데, 이는 기존의 권위를 차용하지 않는 유니아의 태도를 시사한다. 유니아가 구마 중 착용하는 영대는 안드레아의 자색 영대로, 자색은 참회와 보속의 의미를 지니며 고백성사 때 사용된다.[49] 이는 가미긴이 자신의 이름을 실토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유니아는 베드로의 열쇠를 안드레아의 영대로 감싸 희준의 입에 물린 후 빼낸 후 영대를 착용하는데, 이는 가미긴을 희준의 몸에서 자신의 몸으로 옮기는 상징적 행위이다.

유니아가 가미긴에게 "널 내 뱃속에 직접 가둘" 것이라고 선언하자 가미긴은 "네년의 썩은 자궁", "그자에게 정결함을 약속한 그 더러운 곳"에 자신을 가두겠느냐고 비웃는다. 이에 유니아는 "영광인 줄 알아, 이 말대가리야"라며 응수함으로써 여성 신체에 부과된 혐오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정의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는 탈전유적 태도를 보여 준다.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미긴의 욕설은 영화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혐오적 태도는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몰락을 초래한다. 가미긴은 자신이 비하하던 "썩은 자궁", "더러운 곳"에 봉인된다. 또한 "뱃속에 시커먼 종양이나 밴 채로 죽"을 것이라는 저주는 유니아의 뱃속에 갇히는 순간 스스로를 "종양"으로 전락시키며, "종양"이 자신의 저주로 인하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배가된다.

가미긴은 "여자의 배에서 나온 존재는 우리에 대적할 수 없다"며 "서로 살육하기 바쁜" 인간과 자신을 구분지으나, 유니아의 뱃속에 봉인됨으로써 자신이 멸시했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놓인다. 가미긴이 유니아에게 "마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도발하는 것 또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인간

48 「영대」, 『가톨릭사전』, 가톨릭길라잡이, https://m.site.naver.com/1M8IT, 2025.05.02.

49 박종인, 「영대는 원래 다양한 건가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4.03.04., https://m.site.naver.com/1Mf0a, 최종 검색일 2025.05.02.

에 대한 멸시에서 비롯되나, 역설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에 의해 구마된다. 이처럼 가미긴의 여성혐오적 발언은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몰락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이처럼 가미긴의 패배 요인은 여성 혐오에 있다. 유니아는 구마를 "이름만 알아내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구마의 주요 테제로 작동한다. 오컬트 장르에서는 주술적 수수께끼가 등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적 지식이 활용된다[50]. 이는 퇴마가 진행될 때 악마에게 성수를 뿌려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신의 이름을 빌어 명령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이다.

「검은 사제들」에서는 장엄 구마 예식으로 마르베스가 이름을 실토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위해서 성수와 프란치스코의 종, 성가, 성경과 신의 이름을 빌어 명령하는 방식이 활용되었고 그 방안은 적중하였다. 그러나 「검은 수녀들」에서의 장엄 구마 예식은 첫 장면부터 실패[51]하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미긴의 여성 혐오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을 멸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가미긴의 태도는 "감히" 여자가 구마에 참여하느냐는 첫 만남에서부터 나타나며, 반복되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부마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니아의 신념은 가미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유니아는 가미긴을 자극하면서 구마-심문 게임의 승기를 취한다. "바닷가에서 기어 나온 뱀"이라며 "신앙도 없는 어린아이에 빙의해 힘없는 사람이나 사냥하는 등신, (…) 넌 요사스럽기만 한 잡귀야, 그것도 저급한 짐승의 영"이라고 비

50 박인성, 앞의 글, 273쪽.

51 「검은 사제들」에서 베드로는 수컷인 마르베스가 여자인 영신의 몸으로 들어간 것을 "불시착"으로 표현하며 이 덕분에 존재를 "들키는 순간 반은 진 거나 다름없"으며, 이는 사제들에게는 "행운"이라고 말한다. 구마 전 "수컷이 양기를 만나면 세"지기 때문에 신부에게 여자 분비물을 뿌려 "음기로 속이는" "일종의 위장술"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인데, 「검은 수녀들」의 악령 가미긴은 남자인 희준의 몸에 들어갔으므로 「검은 사제들」에서보다 퇴마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미긴이 유니아와 미카엘라를 "음기 덩어리"라고 칭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난하자 가미긴은 이에 분노해 유니아를 저주하고 자신의 내력을 푼다. 이어 성경 구절을 흉내내며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아비일지니”라며 과시하자 유니아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면) 네 입으로 말해 봐.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가미긴은 “매번 간청도 없이 명령부터냐” 라며 일갈하고 “감히 누구한테 기도야. 차라리 내게 무릎을 꿇어! 나는 너희들이 무릎 꿇을 신성”이라고 침을 뱉으며 “차라리 나를 따”르라고 소리친다. 이를 통해 가미긴은 자신이 인간의 위에 있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신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는 이들에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며 “내게 무릎을 꿇”고 “나를 따”르라는 오만한 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가미긴의 패인으로 작용한다.

유니아　이름이 뭐냐, 이 잡귀야?

희준　(울먹이며) 수녀님……

유니아　이름.

희준　멸망이라고 부르자. 너는 썩은 과일을 더 썩게 만드는 병균이니까.

유니아　이름!

희준　나는 태초부터 어디에든 있던 자.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12형상이라고 부르지.

유니아　네깟 게 12형상이라고? 나약한 아이한테 깃든 이 비겁한 사령아, 비겁한 잡귀야. 너는 거리 어디에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벌레와 같은 존재. 밤의 그림자처럼 무용하고 하찮은 잡귀이자 12형상의 졸개! **서품도 받지 못한 수녀에게 무릎 꿇는 악의 하수인. 마르베스의 조랑말!**

희준　**감히, 감히 나를 잡귀라고? 네까짓 게 감히. 이 교만한 년, 이 더러운 년. 내가 바로 지옥의 대후작이다.**

유니아　**이름을 말해 봐. 말해서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봐!**

희준　내가 바로 지옥의 대후작 가미긴이다!

유니아는 “네깟 게 12형상”일리 없다고 도발한다. “벌레”, “밤의 그림자”, “하찮은 잡귀”, “12형상의 졸개”라는 발언은 가미긴의 오만함을 자극하며, “마르베스

의 조랑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같은 12형상의 부하라고 멸시함으로써 가미긴을 조롱한다. 무엇보다 "서품도 받지 못한 수녀에게 무릎 꿇는 악의 하수인"으로 가미긴을 지목함은 가미긴이 "서품도 안 받은 암캐"로 유니아를 비난했던 내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가미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전술로 활용했음을 암시한다. 자신의 오만과 혐오에 묶여 심리전에 휘말린 가미긴은 "감히 나를 잡귀라고? 네까짓 게 감히"라며 분노하여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봐"라는 유니아의 도발에 넘어가 자신의 이름을 실토하고 패배한다.

즉 '여성'에게 부여된 부정성은 유니아에 의해 승리의 실마리이자 수단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여성 혐오를 일삼던 악령이 여성 혐오로 인해 파멸하는 모습은 악령의 어리석음과 우스꽝스러움뿐만 아니라 혐오에 내재한 모순과 정당성 결여를 보여준다.

가미긴을 봉인하고 정신을 잃은 유니아는 바닷가로 나타나는 영적 공간에서 희준과 만나 인사를 나눈다. 감사하다는 희준의 말에 수고했다고 답하는 유니아의 다리로 핏방울이 한 줄기 흐르는데, 이는 「검은 사제들」에서 마르베스가 무당들에게 행한 표상의 변주로 가미긴이 유니아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차분한 분위기와 더불어 유니아의 웃음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검은 사제들」에서의 무당들의 절규 및 공포와 대비되며, 가미긴을 봉인하는 것이 유니아의 주체적 선택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는 비체로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던 여성 신체에 대한 관념을 비튼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재생산과 연관된 여성 신체는 비체와 연결된다.[52] 비체는 특히 종교적인 혐오의 대상[53]으로 기독교 성경에서도 출산과 월경을 한 여성은 "불결"하고 그 불결함은 전염되기에 격리되어야 하고, 정결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성소 출입을 금지당하고 출산과 월경이 끝날 때마다 속

52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은 그녀를 동물의 세계와 탄생, 타락, 그리고 죽음이라는 위대한 순환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남성은 스스로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자각함으로써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운명과 상징계 질서의 유약함을 떠올리게 된다." 크리드 바바라, 앞의 책, 98쪽.

53 위의 책, 34쪽.

죄해야 한다[54]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아의 하혈은 구마의 부산물이자 봉인의 증거로 작동함으로써 여성 신체에 부여된 부정적 이미지를 재의미화한다.

아울러 다음 장면에서 유니아가 깨어난 뒤 처음으로 바라본 성화의 천사가 성모에게 수태고지한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성모와 유니아와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성모는 잉태될 때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성모무염시태(聖母無染始胎)에 대한 믿음은 초대 교회부터 시작되어 1708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성모무염시태 축일을 대축일로 격상하였으며,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55] 그러므로 '죄 없는' 성모와 유니아의 연결은 악령을 품은 몸이자 하혈하는 몸을 지닌 유니아의 무결함과 정의로움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기독교 담론의 이분법적 체계에 대한 전복이자 진정한 선이란 권위적 계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나아가 가미긴을 봉인한 채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유니아의 뒤로 삼신의 상징인 목화꽃이 흩날리는데, 이는 유니아의 희생이 지닌 타당성과 가치를 신화적 이미지[56]를 통해 형상화한 장면이다. 한편으로 이는 유니아와 삼신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목화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57]으로, 희준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니아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처녀이자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처녀신이자 산육신이며 아이를 수호하는 신[58]인 삼신 또한 유니

54 레위기 12장, 15장, 18장.

55 이기우, 「하느님의 역사 개입, 가톨릭다운 식별 [이신부의 세·빛] 무염시태의 성모」, 『가톨릭프레스』, 2023.12.08., https://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7829, 최종 검색일 2025.08.13.

56 김경은 마고를 삼신할미·바리데기·지모신으로 보았으며, 유니아를 마고와 수녀가 결합한 이미지로서 유니아의 신체를 통해 수녀와 마고, 성직자와 제사장이라는 역할뿐 아니라 가톨릭의 다양성과 보편성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김경, 「[김 경의 시네마 크리티크] '섬뜩한 것들'을 봉인하는 마고의 신화적 상징성, 「검은 수녀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5.03.17.,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8, 최종 검색일 2025.05.06.)

57 「목화 (7월 16일)」, 『꽃말사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58 아기의 점지 및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신 산육신(産育神)인 삼승할망에 관한 신화인 「삼승할망본풀이」는 명진국따님애기가 산육신인 생불왕으로,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저승할망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할망본풀이」와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신을 제압하

아를 통해 현현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니아를 통해 삼신과 성모가 연결됨으로써 구마를 성공함은 이분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혼종성의 의의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 가미긴의 이름을 알아내고 봉인하는 방식이 영화 내도록 방해물로 작용했던 '여성'이라는 요소, 이에 내재한 이분법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배타적 관점을 역이용함으로써 달성됨은 '여성'에 낙인으로 작동하던 부정성을 수단으로서 재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검은 수녀들」의 소수적 저항성을 규명함으로써 장르적 문법에 가려진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억압적 세계에 대항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은 사제들」과의 비교를 통해 「검은 수녀들」이 겨냥하는 대상이 이분법적 체계이며, 그것이 기독교 담론을 통하여 드러남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세계관과 구마라는 중심 사건을 공유함에도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 「검은 사제들」과 「검은 수녀들」의 서사가 극명하게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구 오컬트 장르의 문법을 확장하여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서구를 뒷받침하던 이성·종교·과학의 힘이 무너지면서

는 내용을 다루는 「마누라본풀이」로 구성된다. 두 이야기는 아이를 잉태시키고 양육시키는 '생불할망'을 중심으로 이어지며, 아이에게 질병을 앓게 하고 죽게 만드는 '저승할망(구삼승할망)', 아이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신'이 삼신(三神)으로서 불도맞이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은 생불신으로, 생불신은 산신(産神)이기에 생불신을 '산신할망'이라고 하다가 '삼승할망'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수자, 「삼승할망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11. 11.,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2289, 최종 검색일 2025.05.06.) 「검은 수녀들」에서는 산육신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고 각 가정의 제액초복도 관장한다는 넓은 역할로서의 삼신(백민영, 「삼신」,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2290, 최종 검색일 2025.05.06.)에 착안하여 "태어나는 데 줄을 놓은 조상신", "저 집 할머니들"로 다루고 있다.

발생한 공포 장르의 문법, 즉 모든 악행의 배후를 악령으로 두는 설정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선의 위치에서 초자연적 공포를 해결하던 종교가 악령과 더불어 이분법적 체계에 복무하는 현실 문제로 제시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분법적 체계에 균열을 가하는 소수적 저항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준'으로 간주되는 정석적 해결 방식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되는 혼종적 방안과 소수성은 오히려 기존 질서가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작동한다. 또한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부정적으로 규정되던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혐오의 역사적 맥락을 전복적으로 탈전유되며, 특히 여성 혐오를 자행하던 악령이 그로 인해 몰락하는 모습은 여성 혐오가 내적으로 자기붕괴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담론임을 드러낸다.

「검은 수녀들」은 이러한 소수적 저항 방식을 다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를 구현하는 중심 인물인 유니아는 타인뿐 아니라 동료에게조차 "미친년"이라 불리지만, 오히려 그 낙인을 통해 이분법적 체계 바깥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윤리와 실천의 상징으로 거듭난다. 「검은 수녀들」은 이분법적 세계관의 모순과 한계를 폭로하며, 낙인과 혐오를 재의미화함으로써 소수자 주체의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한다. 즉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 장르의 문법을 활용하되 이를 전복하고 확장함으로써 소수자의 윤리적 실천과 상상력이 이분법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권혁재, 「검은 수녀들」, 2025.01.24.

단행본

김지현 외,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파농·사이드·바바·스피박』, 역락, 2012, 132-133쪽.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한길사, 2011,

410쪽.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남기옥 역,『구마』, 성바오로, 2015, 281쪽.
길버트 헬렌·조앤 톰킨스, 문경연 역, 『포스트 콜로니얼 드라마: 이론·실천·정치』, 소명, 2006, 30쪽.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2016, 259-296;326;361쪽.
_____, 김응산 역,『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창비, 2023, 144쪽.
캐럴라인 냅, 정지인 역, 『욕구들』, 북하우스, 2021, 330-335쪽.
크리드 바바라, 손희정 역,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17, 42-43쪽;161-162쪽.
R. S. 수기르타라자, 양권석·이해청 역,『탈식민주의 성서비평』, 분도, 2019, 410쪽.

논문

박권일, 「악령을 퇴치하려는 행동하는 수녀들의 모험 '검은 수녀들'」, 『월간 리뷰』 2025년 3월호, 리음아트앤컴퍼니, 2025, 126-127쪽.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 한국적 장르 서사와 미스터리①-오컬트와 미스터리의 친연성과 교차성」, 『계간 미스터리』 제75호, 나비클럽, 2022, 270-284쪽.
이민형, 「대중문화에 반영된 종교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기독교의 과제: 오컬트 장르물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제86호, 한국실천신학회, 2023, 811-835쪽.
이채영, 「영화 「검은 사제들」과 「곡성」에 나타난 퇴마 소재 스토리텔링 기법과 악의 이미지 연구 — 전통 무속 요소와 오컬트 장르 특질의 융합적 재현 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74집, 중앙어문학회, 97-135쪽.
장서란, 「문학을 활용한 도덕시민교육연구 -혐오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5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225-264쪽.
Bryan Stone, "The Sanctification of Fear: Images of the Religious in Horror Films", *Journal of Religion and Film* Vol. 5, Issue 2,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2001, pp.1-32.

기타자료

김경, 「[김 경의 시네마 크리티크] ‘섬뜩한 것들’을 봉인하는 마고의 신화적 상징성, 「검은 수녀들」」, 『르몽드 디폴로마티크』, 2025.03.17.,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8, 최종 검색일 2025.05.06.

김태환, 「붕괴사고」, 국가기록원, https://m.site.naver.com/1M8Iu, 2006.12.01., 최종 검색일 2025.04.29.

박종인, 「영대는 원래 다양한 건가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4.03.04., https://m.site.naver.com/1Mf0a, 최종 검색일 2025.05.02.

백솔미, 「[이 영화] 한국판 ‘엑소시스트’로 화제 ‘검은 사제들’, 오컬트 장르 인기 견인 한몫」, 『스포츠동아』, 2018.10.17., https://m.site.naver.com/1M8He, 최종 검색일 2025.04.24.

서지현, 「‘검은 수녀들’, 시도는 좋았으나 [무비뷰]」, 『스포츠투데이』, 2025.01.23., https://www.stoo.com/article.php?aid=98524742183, 최종 검색일 2025.04.24.

원명, 「4. 시식(施食)」, 『법보신문』, 2025.02.17., https://m.site.naver.com/1M8Ii, 최종 검색일 2025.04.25.

유은영, 「기상청, ‘오존층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가지: 2014년판’ 발간」, 『글로벌이코노믹』, 2015.07.17., https://m.site.naver.com/1M8Iz, 최종 검색일 2025.04.29.

유준상, 「‘1.5도 지킴이’ 파리기후협약 유명무실? …각국 NDC 제출 미루는 이유」, 『여성경제신문』, 2025.04.09., https://m.site.naver.com/1M8IL, 최종 검색일 2025.04.29.

유해, 「마녀·괴물·영매의 연대, 아름답지만… 김 빠진 ‘검은 수녀들’」, 『여성신문』, 2025.02.04., https://m.site.naver.com/1M8HO, 최종 검색일 2025.04.24.

이기우, 「하느님의 역사 개입, 가톨릭다운 식별 [이신부의 세·빛] 무염시태의 성모」, 『가톨릭프레스』, 2023.12.08., https://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7829, 최종 검색일 2025.08.13.

이대웅, 「바흐의 칸타타, 시간과 공간 초월한 예술」, 『크리스천투데이』, 2022.02.2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5749, 최종 검색일 2025.02.28.

이유채, 「[인터뷰] 끝까지 팽팽한 감정선으로, 「검은 수녀들」 권혁재 감독, 오효진 영화사 집 제작이사」, 『씨네21』, 2025.02.08., https://m.site.naver.com/1M8Ia, 최종 검색일 2025.04.24.

이진민, 「송혜교의 쌍욕과 자궁 비하… '검은 수녀들'의 모호한 정체성」, 『오마이스타』, 2025.01.27., https://m.site.naver.com/1M8HX, 최종 검색일 2025.05.06.

이혜진, 「[북스&] 세계 종말까지 72분… '핵전쟁의 지옥'을 보다」, 『서울경제』, 2025.02.14., https://www.sedaily.com/NewsView/2GOYUFNDS3, 최종 검색일 2025.04.29.

최영주, 「'검은 수녀들'은 왜 금기를 깨고자 했을까」, 『노컷뉴스』, 2025.01.24.,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878, 최종 검색일 2024.04.24.

_____, 「수녀와 무당이 구마를… '검은 사제들' 감독 "중요한 건 마음"[EN:터뷰]」, 『노컷뉴스』, 2025.02.05., https://m.site.naver.com/1M8Hy, 최종 검색일 2025.04.24.

_____, 「"'검은 수녀들', 구원의 '자격' 누가 부여하나 질문서 시작"[엔딩크레딧]」, 『노컷뉴스』, 2025.02.12., https://m.site.naver.com/1M8Hh, 최종 검색일 2025.04.24.

_____, 「유니아는 왜 몸에 악마를 가뒀나…제작자가 풀어준 '검은 수녀들'[엔딩크레딧]」, 『노컷뉴스』, 2025.02.12., https://www.nocutnews.co.kr/news/6291612, 최종 검색일 2025.04.24.

홍수정, 「'검은 수녀들'의 문제적 결말」, 『PD저널』, 2025.02.03., https://m.site.naver.com/1M8I4, 최종 검색일 2025.04.24.

Christopher Reed, 「A Conversation with Edward Berger (CONCLAVE)」, Hammer to Nail, 2024.10.25., https://www.hammertonail.com/interviews/edward-berger, 최종 검색일 2025.03.25.

『가톨릭사전』, 천주교 서울대교구.
『꽃말사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Abstract

A minority resistance of *Geomeun Sunyeodeul(Dark Nuns)*

Jang, seo-l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izes the problem of gender power structure based on a dichotomous worldview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thics by identifying the minority resistance in「Dark Nuns」.

「Dark Nuns」shares the same worldview as a spin-off of「The Priests」, but unlike「The Priests」, which is centered on male priests, marginalized minorities become subjects and subvert traditional exorcism narratives. It also twists the grammar of the occult genre to reveal that evil is not caused by supernatural beings, but by a dichotomous worldview that excludes others and the resulting human behavior.

Furthermore, it shows that marginalized minority is transformed into a basis for ethical practice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that the exocism ceremony, considered the standard, has failed in a hybrid and unorthodox way, subverting the context of misogyny and converting it into a basis for ethical practice by expropriating negativity given to women.

In other words,「Dark Nuns」is significant in that the ethical practices of minorities provide an alternative imagination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the dichotomy.

Key words: Geomeun Sunyeodeul(Dark Nuns), Geomeun Sajedeul(The Priests), Occult film, Horror film, Christianity, Dichotomy, Patriarchy, Minority, Hybridity, Expropriation, Re-signification, Misogyny.

논문제출 / 2025.07.15.
논문접수 / 2025.07.16.
게재확정 / 2025.08.08.